

제2공항 갈등조정협 출범 예고... 찬반 대립 격화

찬성 측 “법·절차대로 추진”... 협의회 불참 선언
반대 측 “도민 결정 방식 환영”... 주민투표 촉구
도민 의견 수렴 방식 놓고 찬반 입장차 더욱 극명

제주도정이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찬반 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제주 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 등 5개 단체는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과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을 절차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전날 제2공항 3대 방침으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 검증 확대 ▷제주도의회 등의 전 도민 의견 수렴을 발표했다.

다만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될 시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민관이 참여하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출범해 역할을 이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제2공항 찬성 단체들은 협의회 구성이 부당하다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2015년 정부 입지 발표 이후, 2024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가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은 이미 11년 동안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쳤고, 최종 단계에 이른 시점에 민관협의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면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위성곤 도지사는 결단을 내리고 법과 절차에 따라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2공항은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를 향해 제2공항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제주도정에 전달했다. 같은 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도민결정을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서 해소되지 못한 쟁점과 검증·검토 과정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제2공항 갈등에 마집표를 찍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투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국토부를 포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민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선행돼야 한다”며 “제주도는 초심을 잃지 말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판단과 숙의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9일 제주 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희만기자

제주대학교 외국인 학생 수 400명대 회복 제주 유·초등·특수 신규 교사 42명 선발

이달 기준 477명... 2022년과 비슷한 수준

제주대의 외국인 학생이 이달 기준 477명으로 2022년도 수준을 회복했다.

9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제주대 학부생과 어학연수생 등 외국인 학생 수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300명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14명(10월 기준), 2024년 356명, 2025년 359명이었다.

차츰 증가하던 외국인 학생 수는 올해 들어 400명대에 진입했다. 이

는 2022년(475명)과 맞먹는 수치다. 다만 2020년(536명), 2021년(500명)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제주대에는 42개국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전체 733명 중 중국인 학생이 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키스탄 79명, 베트남 63명, 몽골·스리랑카 각각 34명, 인도 31명, 일본 20명 등의 순이다.

김지은기자

제주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초등)에 근무할 신규 교사 42명이 신규 임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모두 42명이다. 유치원 7명, 초등학교 26명, 특수학교 9명이다. 유치원 교사는 전년보다 4명 늘어났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는 각각 34명, 9명

감소했다. 전체 선발 인원 중 4명은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선발된다. 유치원 1명, 초등학교 2명, 특수학교 1명이다.

응시 원서 접수는 이달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1차 시험은 11월 7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6~8일 예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임용시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은기자

제주-인천노선 만족도 92%... 운항 횟수 불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외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지난 5월 취항한 제주-인천 노선 이용객들 대부분이 만족도가 높지만 운항횟수가 적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제주 노선이 첫 운항을 시작한 지난 5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해당 노선을 이용한 국내·외 여객 총 1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 거주 내국인의 재이용 의향 및 전반적 만족도가 모두 92%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개월간 누적 탑승률(5~8월)은 인천→제주 노선 83.6%, 제주→인천 노선 93.3%로 평균 88.5%를 기록했다. 만족도는 인천→제주 노선 제주 외 거주 내국인 81.6%, 제주 거주 내국인 83.6%, 외국인

86.9%가 ‘전반적 만족’으로 응답했으며, 제주→인천 노선은 제주 외 거주 내국인 91.0%, 제주 거주 내국인 92.3%, 외국인 92.3%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재이용 의향의 경우 인천→제주 노선은 모든 응답자가 80%대의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주→인천 노선도 60~96%대의 재이용 의향을 밝혔다.

이와함께 인천공항과 지방을 잇는 국내선을 통해 국제-국내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항공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밖에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응답자 모두 주 2회에 그치고 있는 ‘운항횟수 확대’를 꼽았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 수능 응시 7400여명... ‘N수생’ 급증

도교육청,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7414명 접수... 졸업생은 최근 5년 중 최대

제주에선 수험생 7400여 명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수능은 대입 제도 개편 전 마지막 수능인 데다 지역의사제 도입이 적용되는 첫 시험이라는 점에서 제주에서도 졸업생 응시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제주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수험생 7414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졸업생 수험생의 증가다. 졸업생 접수 인원은 1781명으로 지난해보다 196명 늘었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도교육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적용되는 마지막 수능이라는 점이 졸업생과 같은 ‘N수생’ 유입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정원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에 실시되는 2028학년도 수능은 ‘문이과 완전 통합’ 체제로, 문과·이과 구분 없

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보게 된다.

재학생 응시자는 5361명으로 지난해보다 280명 감소했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응시자는 272명으로 전년 대비 15명 줄었다. 총 접수 인원도 지난해(7513명)보다 99명 감소했다.

한편 2027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9일 제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엌 사랑으로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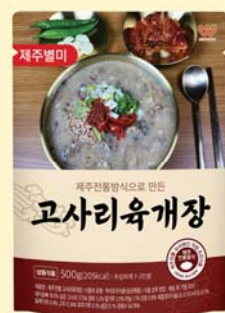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북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